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음 8월 1일) 제23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수성이냐? 탈환이냐?

### 제21대 총선 누가 뛰나? ③ -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

내년 총선은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 관측엔 이견이 없다. 인구감소에 따른 선거구 축소 우려와 함께 진행 중인 정당들의 세부분열이 지지율 높이는 민주당 당세에 맞설 신당 등장 여부로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전북 특징은 친노·친문 인사의 대거 포진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친문 인사들의 성공여부도 총선 관련 포인트 중 하나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현재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으로 나뉘어 포진된 현역의원들을 무너뜨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또 야당 내 호남 의원들 사이에 제3지대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시너지가 얼마나 날 것인지도 무시못할 변수다. 선거제도와 지역구가 어떻게 나뉘질 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현 선거구)을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이 누구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정읍·고창

정읍·고창 선거구는 대안정치연대 유성열 의원 지역으로 불린다. 국회의장을 지낸 5선 김일기 의원에 이어 유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당선돼 정계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제19대에서도 무소속 당선. 20대에서는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을 일으켜 국회에 입성한 말그대로 '황야의 제왕'이다. 관전포인트는 그의 수성여부다. 절치부심인 민주당에선 표적공천이라도 감수하며 탈환해야 할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다른 지역구보다 많은 수의 무개입 있는 정관계 입자들이 당 강판이래 모여들고 있다. 우선 유 의원과 전주교와 서울대 동기동창인 윤준병(58) 전 서울시 부시장이 지난 5월 출마를 일찌감치 발표하며 지역민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

#### 정읍 고창

##### '현역' 유성열 의원

##### 수성 여부 관전포인트

#### 남원 임실 순창

##### 이용호·이강래·강동원

##### 3각 대결에 박희승 가세

##### '죽음의 조'로 분류 예고

또 권희철(54) 미세먼지특위부위원장, 김강(61)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김영재(55)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민형 기자

아울러 민주당 김형욱(56) 전 국무총리 민정수석비서관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심덕섭(56) 국가보훈처 차장, 한명규(61) 전북도 전 정부부지사, 강광 전 정읍시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고종운(40) 변호사의 당내 경선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당에선 김항술(65) 당협위원장이 정의당에선 한병욱(49) 전 전주대 객원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 ▲남원·임실·순창

이곳은 민주당 복당이 무위로 돌아가 도내 유일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 지역구다. 이 곳은 이번 총선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관전 포인트는 무소속 이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민주당 이강래(66) 한국도로공사 사장, 평화당 강동원(66) 전 국회의원의 3각 대결 여부다.

현지 프리미엄의 의원과 민주당 3선 의원 출신, 특유의 독심과 친화력으로 지역 지지기반이 탄탄한 재선 도전 의원 간 다툼을 내건 불꽃경쟁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희승(56)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가세한다면 소위 '죽음의 조'로 분류될 것이라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한국당에선 김용호(43)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에선 김원종(55) 전 청와대 행정관, 정의당에선 정상모(55) 지역위원장이 출격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형 기자



'경술국치 계기' 독립운동추념탑 참배

29일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에서 송희진 도지사를 비롯한 이석규 애국지사, 이강한 광복회 전북도회 지부장,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전장으로 물이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날인 경술국치를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경제독립 다짐을 외치고 있다.

### 2028년까지 1조원 투자·수요 많은 중탄성 제품 세계 공략

## 효성 전주공장, '장미빛 비전' 제시

#### 전북도, 보조금 지원 등 약속

2028년까지 1조원이 넘는 탄소섬유 투자를 약속한 효성 전주공장이 29일 공장 일부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장미빛 비전을 제시했다.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해 본격 시행한 후 수출규제에 따른 위기감 속에 탄소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과 함께 전부를 탄소산업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 효성 이상운 부회장(사진)은 이날 전주공장에서 전북도 출몰기자들 대상으로 탄소섬유 투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전주시 등과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을 갖고 1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2028년까지 현재 1개 라인을 10개 라인으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TOP3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통해 관련 일자리 2300개 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의 수출에 비해 부족한 국내 수요에 대해서는 탄소용기의 현대 자동차와 납품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과 탄소융합기술원 측은

"현대수소차에 공급하는 용기가 현재는 일본 도레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능 테스트와 함께 관련 국제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제 인증' 이전에 업체와의 사전 교감이 중요한 업계 특성상 이미 현대차와 상당한 납품 진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효성은 박전진 공장장의 안내로 6kg 탄소제품의 포장과 사전 검수 작업 등을 공개하고 스포츠와 레저, 골프채, 고압용기 등 국제 수요가 큰 중탄성 제품의 수출 증가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상운 부회장은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과의 탄소 격차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격차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일본이 고탄성 제품에 일부 앞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요가 큰 중탄성 분야 등에서는 효성이 이미 글로벌 수준에 와 있다"며 "수요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고급화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와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와 전주시 등은 탄소산업 종합컨트를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2028년까지 국내 탄소섬유 수요 600% 확대와 공급시장 80% 점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 첫마중 2단계·삼천동 막걸리골목 간판개선 추진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가 실시한 '2019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총 7억원의 사업비(첫마중길 2단계 4억, 삼천동 막걸리골목 3억)를 투입, 첫 마중길 주변 상가 52곳과 삼천동 막걸리골목 45곳의 노후·불량 간판

등 난립된 240여개의 간판을 전면 철거하고 110여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첫마중길과 삼천동 막걸리골목의 노후화된 간판이 정비되면,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심어, 이곳 상권의 재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특히, 삼천동 막걸리골목은 한때 저렴한 가격과 푸짐하고 깨끗한 안주 먹거리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돼 붐을 이루었으나, 요즘들어 관광객과 애주가들 사이에서 막걸리 가격 상승 등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효철 기자

메일 INDEX

2면 - 정부, 내년 513.5조 예산 편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